

유통·화장품 한 주 째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유통업계 광복절 임시휴일 특수 (중부매일 15.8.16)

유통업계가 지난 주말 광복절 임시휴일로 인한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남. 광복 70주년인 지난 15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해 정부가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하면서 유통업계를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것. 실제로 비하동에 위치한 롯데 복합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이 금, 토, 일요일이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임시휴일 지정으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영화관과 마트가 함께있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휴가를 보낸 후 다시 한 번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 곳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말 내내 주차난을 겪기도 함. 롯데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은 지난주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주어진 임시휴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마땅한 곳을 찾다보니 복합 쇼핑몰을 방문한 것 같다"며 "아울렛의 경우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마트와 영화관을 찾은 방문객이 많아 혼잡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함.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성안길의 롯데영플라자 청주점 역시 임시휴일을 맞아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증가, 특히 충청점 역시 지난주 주말에 비해 매출이 늘어나는 등 광복절 임시휴일로 인한 특수를 톡톡히 누림.

홈쇼핑, 아젠 홈쇼핑 아닌 모바일 쇼핑? (한국경제 15.8.14)

홈쇼핑 3사의 모바일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채널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체 홈쇼핑 판매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3사는 취급고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모바일에서만 1조1390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3사 전체 취급고 4조8832억원의 2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보다 8.4%포인트나 높아진 것. 2년 전인 2013년 상반기 홈쇼핑 3사의 모바일 취급고는 2148억원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1개사 실적 보다 적은 액수.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홈쇼핑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MBK, 코웨이 인수후 기업가치 2배 정중 (이데일리 15.8.13)

MBK파트너스가 코웨이(021240)(92,000원 2,200 +2.45%) 매각을 추진을 결정함. 지난 3년간 '웅진'을 텐 코웨이는 승승장구했다. 당시 하이마트(071840)(62,200원 100 -0.16%)를 포기하고 코웨이에 베팅한 MBK의 판단은 적중함.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이자 바이아웃펀드인 MBK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4400억원 이상을 배당으로 가져갔고, 코웨이 임직원들에게도 후한 임금 인상을 단행함. MBK는 코웨이 인수 이후 이익의 60% 이상을 배당하며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함. 지난 2년간 1100억원을 배당으로 가져감. MBK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코웨이홀딩스는 지난해 인수금융을 리파이낸싱(차환)하며 3300억원을 주주인 MBK펀드에 배당함. 현재 코웨이의 실적을 기준으로 2조5000억원 내외의 매각 가격은 큰 거품이 아니라는 평가. 지난해 코웨이의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EBITDA)은 5780억원을 웃돌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CF)도 5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코웨이 매출의 94% 이상이 환경가전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분야 매출의 80% 이상이 장기계약 형태의 렌탈이라는 점에서 전체적 매출은 안정적 성장세가 가능하다는 분석. 코웨이의 EBITDA마진은 2012년말 20.6%에서 2013년 25.4%, 2014년 26.8%, 2015년 3월말 28.4%까지 높아짐. 다만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태국 등 해외법인과 수처리사업(그린엔텍)에서 연간 2000억원 내외의 매출에 낮은 영업수익성을 기록 중이라 이 부분은 추후 코웨이 인수자에게 남은 과제가 될 전망.

락앤락, 상반기 순익 '반토막'...중국 시장 회복에 기대(기업CEO경영데이터뉴스 15.8.13)

락앤락의 올 상반기 매출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시장에서 고전했기 때문. 상반기 국내 매출(매출 발생 지역 기준)은 559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2.4%(161억 원) 감소함. 1분기 매출(268억 원)은 27.7%(103억 원), 2분기(291억 원) 매출

은 16.8%(52억 원) 각각 감소함. 부문별로 보면 주방·리빙·조리용품 등 기타 부문의 올 상반기 국내 매출은 173억 원으로 1년 새 38%(106억 원) 급감. 락앤락 클래식과 비스프리, 글라스 등 식품용기 부문의 매출은 238억 원으로 18%(51억 원) 줄었다. 음료용기 부문만 매출이 154억 원으로 1억 원 증가에 그침. 락앤락은 "메르스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매출 둔화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는 원래 김치통 판매로 매출이 안정적인 시기인 데다 쿡웨어 제품 마케팅도 활발히 할 예정이라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

코멘트

전주 동향 (8/10-8/14) 롯데그룹 상장외지에 따른 수급상의 모멘텀 부각

- 롯데쇼핑은 백화점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한 실적에도 그룹관련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과 롯데호텔에 대한 상장외지 발표에 따라 수급 상의 모멘텀을 반영함
- MBK의 코웨이 매각 주관사 선정으로 하반기 긍정적 실적 전망에도 매각 관련 불확실성 확대

금주 전망 (8/3~7) 코스맥스의 중국 고성장과 락앤락의 하반기 안정화로 주가 모멘텀 집중

- 아모레퍼시픽과 BGF리테일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펀더멘털 입증에도, 업종을 주도하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던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예상됨.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매크로의 불확실성 이슈로 실적 우려 보다 업종 대표주에 대한 주가センチ먼트 약화가 예상됨. BGF리테일 또한 과거 3분기 연속의 실적 서프라이즈 대비 2분기 실적의 상대적인 둔화로 프리미엄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으로 언론의 시선을 받고 있는 한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하반기 영업은 과거 3년 연속의 역신장 대비 안정화가 예상됨. 따라서 백화점업종 주가는 시장 불확실성 대비 하방경직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표 1. 주간 Index 지표와 시가총액 증감률

	종가(₩)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주전	15일 전	1개월전	증감률	1주전	15일 전	1개월전
KOSPI	1,983.46	-1.33	롯데쇼핑	12.75	11.50	4.56	GS홈쇼핑	-5.72	-1.31	-8.69
KOSDAQ	731.36	-2.68	현대백화점	3.67	4.71	2.98	BGF리테일	-0.23	3.33	17.57
유통업	586.45	-0.02	신세계	-0.42	9.81	-13.12	GS리테일	0.66	8.94	13.83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6.64	-2.11	-1.28	코웨이	-11.96	-5.93	1.32
KRW/USD	1,174.60	0.68	롯데하이마트	-2.81	-9.20	-14.91	아모레퍼시픽	-7.24	-4.06	-14.86
KRW/JPY	943.00	0.79	CJ오쇼핑	1.46	-10.09	-14.82	LG생활건강	-7.32	9.88	5.92
KRW/CNY	182.16	-2.72	현대홈쇼핑	1.19	3.64	7.56	코스맥스	-2.52	-2.07	-3.63
			엔에스쇼핑	7.36	17.93	9.72	한국콜마	-3.30	-6.39	-8.07

자료: IBK투자증권